

## 한돈산업의 새로운 도약



**최기수**  
(주)농수축산신문 대표이사

‘한돈’ 하면 미국인으로 귀화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출신 경제학자인 슈페터(Joseph Alois Schumpeter)가 강조한 ‘혁신’이 먼저 떠오른다.

한돈 하면 왜 혁신이 연상될까? 한돈은 지난 2010년 양돈자조금사업 일환으로 탄생됐다. 소위 마케팅 수단으로 전에는 없던 한돈이 태어나게 됐다. “우리 소는 ‘한우’라고 하는데… 왜 우리 돼지는 그냥 돼지고기여야만 하는가?” 이 같은 대한양돈협회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우리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바꾸는 시도를 놓고 찬반이 없지 않았다. 그냥 말장난에 그칠 거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었다. 하지만 마케팅 수단으로 제시된 ‘한돈’은 시장에서 우리 돼지고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을 했다. 우리 돼지고기가 한돈으로 시장에 안착하면서 대한양돈협회도 대한한돈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돈은 수입 돼지고기와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높였고, 국산 돼지고기의 가치까지 높였다.

부가가치를 제고했으니 바로 혁신이 아닐 수 없다.

한돈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한돈산업 총생산액은 6조6천억 원을 넘는다. 이는 국내 농림업 총생산액의 1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돈산업 발전의 주역은 바로 양돈농가이다. 규모화와 시설현대화, 사양기술의 발전을 통해 한돈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온 그들의 노력 결과이다. 여기에 배합사료, 동물약품, 기자재산업 등 관련 산업이 뒷받침을 했다. 정부의 축산물등급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등 제도개선도 큰 힘이 됐다. 1992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축산물등급제는 돼지의 규격화를 이끌어 냈고, 품질고급화를 유도했으며, 몰택지를 근절하는데도 한몫을 했다. 소비자의 한돈 사랑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한돈산업이 갈 길은 멀다. 한돈산업을 둘러싼 안팎의 환경은 점점산중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어렵다. 축산업을, 양돈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악취가 주변에 피해를 입히고, 특하면 터지는 구제역은 국민들에게 이만저만한 피해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있고, 저래도 한돈이 안전할까 하는 의문마저 품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방위적인 FTA(자유무역협정)로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는 수입 돼지고기와 경쟁도 녹록치 않은데…….

어떻게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나?

먼저, FTA시대를 맞아 값싼 수입 돼지고기와 경쟁에서 한돈산업이 살아남는 길은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를 통한 차별화이다. 하지만 한돈의 품질은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다.

“국산 삼겹살은 모양이 불규칙하다. 절단면이 고르지 않다.” “수입 삼겹살은 모양이 일정하다. 절단면이 고르고 형태가 일정하다.” 농림수산물 원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내놓은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고기를 육안으로

구별하는 방법이다.

삼겹살 모양이 불규칙하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맛이 일정할리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맛있고, 언젠가는 맛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떨어진다. 물론 한돈이 모두 이런 것은 아니다. 이름 있는 브랜드 한돈은 삼겹살의 결이 고르고 일정하다. 사양관리 결과다.

지난 3월말 농산물수급안정방안 토론회에 갔다가 뒤풀이 장소에서 농협조합장 한분과 동석을 하게 됐다.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서 급하게 삼겹살을 굽던 그분이 “얼렸던 돼지고기네”라고 일침을 놓았다. 소비자는 이미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다.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곧 닥친다.

생산성 향상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MSY(모든 마리당 연간 출하마릿수)가 선진국보다 최고 10마리가 가까이 차이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입 돼지고기는 빠른 속도로 국내시장을 장악하면서 한돈의 설자리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FTA를 등에 업고 값싼 가격을 앞세워 밀물처럼 들어오는 수입 돼지고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환경과 질병문제이다. 국민들은 특하면 발생하는 구제역에 지쳤다. ‘분뇨 냄새가 고향의 냄새’라던 시대도 지났다. 국민들은 코를 막아야하고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가축분뇨 악취에 더 이상 관대하지 않다. 농촌에서도 마찬가지다. 굴러온 돌이 먼저 자리를 잡은 축산농가를 몰아내는 현실이 됐다.

문제는 아직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적 뒷받침이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돈농가의 자구노력과 함께 악취제거기술이 뒷받침된다면 한돈산업의 목을 옥죄는 환경문제도 극복이 가능하다. 축사환경을 지금보다 쾌적하게 하고, 축사주변에 방향성 초목을 많이 심으면 악취는 줄어든다. 한돈농가는 당장 밀식사육 등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사주변에 방향수 등을 심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정부도 축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해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R&D(연구 개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 농축산업에, 한돈산업에 어렵지 않은 시기는 없었다. 그래도 한돈산업은 크게 발전해왔다. 한돈 농가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돈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동경정식**

